

##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라

#### ICN,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발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 국제간호협회의(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 ICN)는 2019년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5월 12일) 주제를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 : A Voice To Lead, Health For All)’로 정해 발표했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됐으며, ICN은 매년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ICN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 슬로건 아래 연속성을 갖고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주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년 주제는 ‘건강은 인권이다(Health is a Human Right)’였다.

2019년 주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은 1978년 알마아타선언에서 채택했던 목표이기도 하며,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터닝 포인트였다.

보편적 의료보장(UHC)은 모든 국민이 그들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즉 재정적 위험 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3. 건강과 웰빙’의 세부 실천목표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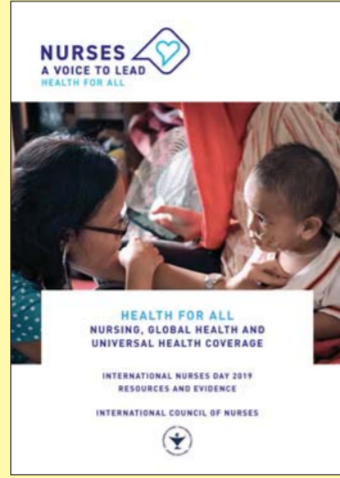
ICN은 “그동안 인류의 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많은 진보와 성취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취약점 또한 갖고 있다”면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알마아타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감염병 보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고, 빈부의 격차와 건강 불평등도 커졌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이며, 여전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은 단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은 인권이다. 건강에 있어서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야 하며, 간호사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나이, 인종, 문화, 장애, 질병, 젠더, 민족(국적), 정치,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CN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 도전과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 ‘유령병’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의 결과



물 ‘만성질환’ △효율적인 비용으로 보다 나은 ‘건강결과’ 달성 △이민자와 난민 건강문제 △정신건강과 웰빙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등을 제시했다.

ICN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회장은 “환자 가까이 있는 간호사들은 정책 테이블에 나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며,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간호사의 목소리를 내고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거자료와 사례들은 보편적 건강보장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네트 케네디 회장은 “간호사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인력”이라고 말했다.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관련 자료 원문은 ICN 홈페이지(www.icn.ch)에서 볼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알마아타선언(1978-2000)

알마아타선언(Alma-Ata Declaration)은 1978년 구소련의 알마아타에서 열린 WHO와 UNICEF 공동주최의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세계 각국이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알마아타선언에서는 건강은 기본적 인권이며 사회적 목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격차 줄이기, 주민 참여의 권리와 의무, 일차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행동과 국제협력 등을 다루고 있다.

#### 밀레니엄개발목표(2000-2015)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는 유엔이 2000년 채택한 의제이다. 2015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8대 목표는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다. 이들 목표는 서로 연계돼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 지속가능개발목표(2016-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잇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이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이중 셋째 목표가 ‘건강과 웰빙’이며,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구축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행동 △해양 생태계 보호 △육식생태계 보호 △평화와 정의 및 제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들을 강화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염두에 둔 발전방향을 토대로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단축 없이 유지

###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 개정

매 인증주기마다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의료기관 인증의 불합리함이 해소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근)은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이 개정돼 3월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고려해 미리 인증조사를 받고 인증 등급을 획득하더라도 이전 유효기간 4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대비한 의료기관들의 기존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해소돼 인증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해왔다. 인증조사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인증서 교부 승인 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

돼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따랐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12월 31일까지일지라도 인증 등급을 받은 10월 1일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됐다면, 개선 후에는 본래 유효기간이 끝난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단 인증서 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원근 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해나감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개최 ... 여성 역량강화 등 논의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3월 11일 시작됐으며, 3월 22일까지 열린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3월 10~16일 참석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 이사회(ECOSOC) 산하 정책개발위원회이다. 유엔회원국 가운데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임기 4년의 4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매년 세계 각국 및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가 모여 여성 권한 강화 및 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접근’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고위급 일반토의, 장관급 원탁회의, 장관급 상호대화, 전문가 패널토의, 결의안·합의결론 채택 등이 진행됐다.

진선미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성평등 증진이라는 법과 제도 개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정관념과 차별, 폭력 등 사회 전반의 인식, 인권감수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간극을 고려해 더욱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적 사회보장체계와 공공서비스,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진선미 장관은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여성리더십 제고’ 주제로 정부가 낮은 여성임원 비율과 성차별적 직장문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전했다.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주요 의제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합의결론’을 3월 22일 채택한다.

이진숙 기자 jslee@



##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업)